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마 28:9; 눅 24:36).

평안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최선을로 반응하는 자들이 맛볼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며 명령하시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요 14:26).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단순히 문제나 근심이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질이나 지위나 안전이나 권세나 사람을 통한 안정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부족함 없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평안을 위해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까?

죄가 분명한데도 변명거리를 찾으려 자기 위안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당화하려는 순간, 이기적인 자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정직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눅 9:23). 자기 권리, 자기주장, 인간적 본성 모두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주님을 떠나 다른 무언가를 통해 나의 존재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 인정받으셨습니다(막 1:11).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판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선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 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안갑니까?